

#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목 육성 '수산자원 보호' 위한 단속 나선다

###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이상기후·소비자 트렌드 변화 맞춰 발굴 추진

무주군농업기술센터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과학영농실증시험포를 활용한 아열대작목과 지역특화작목을 발굴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기후 및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유망하고 특색 있는 새 소득 작목을 발굴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전경.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과학영농실증시험포에 애플망고 및 만감류(굴, 한라봉, 레드향) 등 지역적응성 시험에 나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무주군농업기술센터는 애플망고 화분재배 및 적정 생산을 위한 토양 연구와 만감류 식재를 위한 연동 하우스 난방기 보수와 함께 스마트온트roller(환경제어시스템) 점검도 나선다.

특히 군은 아열대과수를 식재와 함께 지역특화작목육성을 통해 명실상부한 지역농업인의 교육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이종철 과장은 "아열대과수가 신소득 작목 및 틈새작목으로 자리매김 돼 지역

농업인의 농가소득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실증시험포 운영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열대과수 등 지역특화작목은 무주군 관내 농업법인과 유통매장과 연계, 유통 출하해 농가들의 새로운 대체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향후 무주군농업기술센터는 아열대과수 하우스(전남 고흥)과 망고양농장(전남 영광) 강원도 인제 등 선진지를 견학하는데 이어 무주군의 기후 및 소

비자 구매 기호에 맞는 아열대작물을 농가에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첨단 현대화 하우스라 불리는 과학영농실증시험포는 새로운 기술 및 현장에로기술 실증 시범포장 운영과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총 2억 원(국비 1억 원 포함)의 사업비를 투자해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내에 1동 1,024㎡ 규모로 지난 2020년 설치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금강·남대천 불법어업 행위 집중 단속

무주군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한 달간(7.27.~8.26.) 금강 및 남대천의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집중 단속대상은 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한 수산식물포획을 포획·채취하는 유해어법, 투망·작살·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잠수용 스쿠버장비 등 불법 어구를 사용하는 유해행위다.

무주군의 경우 2019년부터 지난 3년 동안 1건의 불법어업 행위를 적발하고 사업당국에 고발조치했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질 수 있으며, 유해어법으로 수산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불법 어구를 사용하여 유해행위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김완식 과장은 "장마가 끝남에 따라 불법 어구를 사용한 수산자원 포획·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임하고 군민들도 다슬기 등 수산자원이 보호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대학생 농촌일손돕기' 농가 단비

여름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이 장수군을 찾아 일손돕기를 진행하며 농가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26일 장수군에 따르면 영농철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가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일광대학교 학생 90여 명은 지난 7월 18일부터 장수군 관내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서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은 오는 25일까지 이뤄지며 군은 이후에도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공무원 농가일손 돕기를 진행하는 등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일손돕기 수혜를 받은 농가는 "대학생들이 영농철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도와주니, 가슴 속 단비 같다"며 "본격적인 수확을 앞두고 일손이 부족해 걱정이 많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여름방학을 맞아 쉬고 싶은 텐데도 장수군 농촌일손 돕기에 참여해준 학생들에게 감사하다"며, "농촌인력증개센터와 일손돕기,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농산물종합가공센터, HACCP 재인증 쾌거

### 액상차·고형차·과·채가공품·기타가공품 등 4개 유형

진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액상차 등 4개 유형에 대해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재 인증을 받았다.

제조, 가공 및 유통 등 판매되는 모든 과정에서의 안전관리기준을 수립해 위해요소 관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안전한 사업장임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이번에 인증받은 품목은 액상차, 고형차, 과·채가공품, 기타가공품 등 4개다.

진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지난 2016년 8월 3일 HACCP인증을 받고, 추출기, 동결건조기, 분쇄기 등 44대의 설비를 갖춰 유통전문판매업을 취득해 위생교육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홍삼환, 아로니아 분말 등 4유형 21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농산물 가공품 생산에 있어 HACCP인증 시설이 필수지만 여러 가지 여건 상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농가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현재 80농가가 이용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약 7.2톤에 농가매출액 2억 6000만원을 달성했다.

올해는 4억원을 투입하여 농축기, 스틱포장기 등 소규모 농축공정 장비를 신규 구축하는 등 농가 수요 대응에 힘쓰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고경식 소장은 "가공센터 이용자들에게 HACCP 위생 안전 관리 교육을 꾸준히 추진해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지원하고 농산물 가공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액상차 등 4개 유형에 대해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재 인증을 받았다.

### 지역 소식통

#### 무주군, 조림지 활착률 조사 추진

무주군이 관내 임야에 식재된 조림목 생육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림지 활착률 조사를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조림지 활착률 조사는 봄과 전년도 가을에 심은 나무가 제대로 생육되어 자라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조림 성공률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군에 따르면 올해 봄철에 조림한 조림목의 활착과 생육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활착률 조사는 193ha 조림지를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다. 조사 대상은 소나무와 느릅나무, 백합나무, 상수리나무 소나무 등이다.

표준지 선정방법은 조사 대상지 전 구역을 답사한 후 표준지 조사법에 의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한 후 활착률 50% 미만 조림지에 대해 2023년 재조림과 보식 반영을 검토한다.

무주군청 산림복지과 이수혁 과장은 "재조림 시 조림시기와 수종 선택 등에 신중을 기해 조림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행정기관 4개소 실내정원 스마트 가든 조성

진안군은 공공시설 이용자들에게 휴식과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군 보건소 등 행정기관 4개소에 스마트 가든을 조성했다.

스마트가든은 식물 자동화 기술을 도입한 새로운 형태의 실내정원이다.

공기정화 효과가 뛰어난 식물을 식재해 공기 중 휘발성 유기물질을 흡착, 흡수하여 연중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다. 특히 관수·조명·공조 제어시스템 등 자동화로 인한 별도의 관리 인력이 필요없어 유지관리의 효율성이 높다.

군은 총 사업비 1억 5천여만원(국비 50%, 군비 50%)을 들여 진안군 보건소, 마령면사무소, 백운면사무소, 동향면사무소에 4,600여본의 스킨답서스 등 정화식물을 벽면 녹화했다.

이는 근로자 및 이용자들의 생활 속 작은 힐링공간으로 거둬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합동 가스안전 홍보 캠페인 실시

장수군은 지난 25일 장수읍 전통시장과 버스터미널 등에서 LPG배관망사업단 안전팀과 함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동 가스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생활 속에서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이날 캠페인에는 장수읍 일자리경제과, LPG배관망사업단이 참여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주민들에게 가스보일러와 타이머 록 사용법, 가스비 절약 사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하고 전반적인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사용법을 설명하는 등 가스안전 수칙을 강조하며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장수군은 군민들의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 총사업비 165여 원을 투입해 2018년 12월 장수읍 LPG 배관망 지원 사업을 완료했으며, 현재 장수읍 소재지 일대 약 1,300세대에 LPG를 공급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